

진도의밤, 무형유산이 깨어나다

이동형 퍼레이드와 플래시몹이 결합된 '2025 진도 굿나잇 야행'
10월 30일(목) 14:00 ~ 21:00, 진도읍 철마광장 및 주요 시가지

진도군은 오는 10월 30일(목), 진도읍 철마광장과 주요 시가지에서 「2025 진도 굿나잇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간에 국가유산을 볼 수 있게 기획한 '국가유산 야행'으로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진도의 대표 무형유산을 주제로 지역 예술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식의 야간 행진(퍼레이드)형 행사이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체험 활동과 공연 속에서 진도의 전통이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이번 야행을 통해 '유산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서, 함께 움직이고 느끼는 축제'로 변화해, 국가와 진도의 보물인 민속문화예술인과 관람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문화유산 여행의 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움직이는 무형유산... 거리 위에 펼쳐지는 예술 행렬

이번 행사의 백미는 행진(퍼레이드)과 참여형 플래시몹이 결합된 특별 무

대이다.

남동리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대취타 행렬(진도개야 달맞이 가지)을 시작으로, 진도의 대표 민속예술인 다시래기, 진도북놀이,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등이 거리 곳곳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각 무대는 단순히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라, 관람객이 읍 시가지를 이동하며 직접 참여하는 '유동형 무대'로 구성되며, 행렬의 리듬에 따라 관객이 자연스레 합류해 춤추고 노래하는 플래시몹형 참여예술로 확장된다.

진도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전통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관객이 그 흐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축제 형식"이라며, "진도의 무형유산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 예술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의 대미는 247명의 공연자가 함께하는 '진도 강강술래 한마당'이 장식하는데, 진도의 247개 섬을 상징하는 247명의 구성원과 참여자들이 만들어 낼 강강술래는 공동체의 화합과 생명의

순환을 노래하며, 야행의 밤을 장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주와 전통의 맛, 감각과 감성으로 빛낸 진도의 밤

공연뿐만 아니라 진도의 감성과 맛을 담은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진도 야-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가와 주민이 만든 수공예품, 향토 상품(굿즈)을 선보이며, '소리꾼과 한 잔 - 얼썬다', '진도노리 한마당', '유리즈 온 더 진도', '나도 진도 스타', '홍주 하이볼과 전문 디제이(DJ)가 함께하는 '홍주 전자댄스음악(EDM) 클럽' 등 이색적인 내용들로 운영된다.

특히, 진도군은 10월 31일(금) 저녁에 의신면에 있는 오토 캠핑장에서 진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힐링족을 위해 '진도 캠핑&버스킹존'을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무형유산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진도의 밤'을 제시할 계획이다.

버스킹 공연은 오토 캠핑장 이용객이 아니어도 관람이 가능하며, 희망자에게는 한정판 '굿즈 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오토 캠핑장 이용 신청은 진도군 공공앱 또는 윤림공원 누리집 (<https://www.jindo.go.kr/sambyeolch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통의 울림, 진도의 미래로 이어지다'

진도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진도에서 펼쳐질 이번 '진도 굿나잇 야행'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지역 예술인, 학생,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살아 있는 국가유산 야행"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울림과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제48회 전남민속예술축제 27일 강진서 팡파르 29일까지 '전남의 얼과 흥, 강진에서 하나로' 주제

제48회 전라남도 민속예술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진군 제1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남의 전통 민속예술을 보존·계승하고 도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이어지는 전남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다. 올해는 전남 17개 시·군에서 26개 단체(일반부 17팀, 청소년부 9팀)가 참여해 지역별 특색 있는 민속예술 경연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27일 오전 10시 강진군 제1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식전공연으로 전남도립 어린이국악단의 흥겨운 국악 무대가 마련돼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첫날 개막식 이후에는 일반부 1부 경연이 열려 보성 푸르미예술단, 강진문화원, 진도민속놀이진흥회 등 9개 단체가 무대에 올라 각 지역의 전통과 흥을 뽐낸다.

둘째 날은 일반부 2부 경연으로 순천, 담양, 곡성, 광양, 해남 등 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청소년부 경연이 진행되며, 강진 용전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학교·단체가 참여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무대를 선보인다.

폐막식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상식과 함께 열리며,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는 2026년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 전라남도 대표팀으로 선발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의 전통 민속 예술을 한자리에 모아 도민과 함께 즐기는 뜻깊은 축제"라며 "강진의 문화적 품격을 바탕으로 전남의 얼과 흥이 살아 숨쉬는 무대를 준비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0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갈대밭과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남민속 예술축제와 함께 강진을 찾는다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시훈, 이하 '센터')는 10월 25일 오후 광양읍 인서리공원 일대에서 광양원님길 브랜드 축제 '7272뱅뱅원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님길'은 광양읍 광양역사문화관에서 동초등학교에 이르는 골목길로, 과거 원님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았던 길로 전해진다.

센터는 광양읍의 도시재생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광양원님길'을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왔으며, 2022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매월 '골목길 원님행차 재현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2024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해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와 연계한 원님행차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흐름을 잇는 문화 콘텐츠 브랜드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제로 기획됐다.

축제명 '7272뱅뱅'은 광양원님길의 시

역사 속 원님, 오늘의 축제가 되다

10월 25일 오후, 광양읍 인서리공원서 '7272뱅뱅원님축제'

작점인 '남문라운지(남문길 72)'의 주소에서 착안한 언어유희다. '치티치티뱅뱅(Chitty Chitty Bang Bang)'은 영국 작가인 플레밍의 소설과 동명의 뮤지컬 영화에서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배기음으로, 우리말로 '부릉부릉' 또는 '뽀뽀뱅뱅'에 해당한다.

센터는 '원님길의 축제를 힘차게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가수 이효리의 동명 노래 제목과의 친숙함을 더해 시민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축제의 메인테마는 '광양원님'이며, 콘셉트는 와글와글 복작복작이다. 어영당·박세후 등 역사 속 광양원님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원님길 곳곳에서 펼쳐져 광양원님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공연으로는 광양의 이야기를 활용해 전통곡을 각색한 현대판 마당극 ▲〈박터졌답서?〉, 이탈리아의 골목을 연상케 하는 ▲〈베란다 콘서트〉, 아르헨티나 문화와 만날 수 있는 ▲〈반도네오밴드 버스킹〉, 광양에 녹아든 다양성을 보여줄 ▲〈다문화 인형극〉,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함께 고민해 보는 색다른 콘서트 ▲〈스레기피아노 버스킹〉 등이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역사문화를 짚으며 원님길을 함께 돌아보는 ▲'원님길 골목투어', 광양의 이야기를 담은 ▲'아트굿즈 만들기 체험'과 ▲'슈링크 공예', 전통 차와 예절을

함께 배우는 ▲'다례(茶禮) 체험', 애니메이션 <케데헌(K-POP Demon Hunters)>에 등장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전통 매듭팔찌 만들기', ▲'어린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골목놀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고대 마한의 찬란한 역사 시민과 함께 되살린다

오는 25일 반남 고분군 일원서 '마한왕관 문화행사'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대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마한왕관 문화행사'를 오는 25일 반남 고분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나주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체험형 축제로 마련했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반남마한유적보존회가 주관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체형 문화축제로 진행한다.

'마한왕관'은 영산강 유역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모티브로 한 상징물로 마한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였던 반남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다.

행사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풍물놀이를 비롯해 마한왕관 만들기, 전통 옥장신구 제작, 마한 음식 시식회, 생활문화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을 운영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마한왕관 문화행사는 우리 지역이 간직한 고대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역사문화도시 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062-525-9775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